

● 論 說

編修를 擔當하면서

李 允 鍾*

學會의 性格과 活動 및 發展過程을 가장 잘 表現하고 있는 것이 會誌인 까닭에 電氣學會誌야말로 本學會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本會誌는 1948年 10月 1日에 發刊된 이래 學會發展과 더불어 成長하여 最近에 와서는 學術誌로서의 面貌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會員 여러분들의 積極參與와 前任編修陣의 꾸준한 努力의 結果라고 생각할 때 새로이 編修를 맡은 우리들은 功를 勞 무너뜨리는 것만 같은 念慮가 앞섭니다.

여러 會員諸位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本會는 總會 學術發表, 講演會, 심포지움 및 各種 세미나등의 많은 活動에 會員 여러분들이 參與하고 있지만 大多數의 會員들은 隔月로 配布되는 會誌를 통하여 學會의 消息을 아는 동시에 學會와 接觸하고 있다는 것이 學會誌의 一面입니다. 또한 學會誌는 電氣技術이라는 專門分野에 있어서 技術水準의 現況, 進步 및 將來動向 등을 紹介하는 任務를 遂行하여야 하며, 會員여러분들이 投稿한 貴重한 研究論文을 審査하여 掲載하여야 합니다.

즉 學會誌는 (1) 會員動態를 包含한 會告, (2) 電氣技術에 관한 展望, 資料, 報告, 解說 등등의 Journal, 그리고 (3) 會員의 研究論文 掲載의 3大使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의 研究論文은 電氣學術發展에 參與하는 內容이어야 하고 獨創性이 있으며 다른 公開出版物에 發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獨創性이란 勿論 理論面에서 認定될 수 있어도 되고, 例컨대 機械의 어떤 部分의 치수를 特別한 값에 選定했을 때 最高의 性能이 얻어졌다던가, 또는 材料의 組成比를 從來와는 다른 값으로 하였을 때 보다 좋은 品質이 얻어졌다던가 하는 새로운 技術開發에 관한 論文에 있어서도 그들 數値를 明示함으로써 獨創性이 認定되고 體系化되어 있으면 掲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接受된 論文은 10개 分科의 委員으로 構成된 編修委員會에서 委屬한 論文審査委員의 심사를 거쳐 通過되어야만 掲載될 수 있으며 審査에 通過된 論文이라 할지라도 論文의 價値를 喪失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會員諸位의 讀解에 便하도록 著者에게 問議를 한다던가,

修正을 附託하는 일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電氣學會雜誌를 一層 빛나는 것으로 하자는 一心에서 이므로 著者께서는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審査에 通過되어 掲載된 各分野의 論文이 實際로 우리나라 電氣產業分野에 固 有用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學會誌 論文의 性格으로 보아 지나친 要望이 아닐까 생각되며 이러한 任務는 보다 더 Journal쪽에 擔當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本會誌의 編修에 있어서는 前任編修委員 諸氏도 그렇게 하였듯이 되도록 많은 會員들이 會誌에 接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Journal分野에 계속 精力을 傾注할까 합니다.

元來 우리 電氣學會는 널리 電氣技術全般을 cover하는 學會입니다. 따라서 Journal分野에 있어서도

- 電氣理論
- 回路 및 system
- 電氣機器
- 電力工學
- 電氣材料
- 電氣應用
- 電動力應用
- 自動制御
- electronics
- 情報工學

의 모든 電氣工學分野를 對象으로 하는 內容의 編修를 企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今日까지의 우리나라 電氣產業分野의 高度成長은 人的資源과 優秀한 外國技術의 積極的인 導入에 있었음이라만 앞으로 技術人이 祖國近代化에 積極參與함으로써 國家產業發展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의 電氣技術은 단순히 外國技術의 導入에만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것을 빠른 時日內에 消化하고 獨自적으로 新技術을 創造하여 外國과의 技術格差를 縮小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學會誌의 編輯에 있어서도 이 點에 留意하여 위의 目的을 達成하는데 會誌가 多少나마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 學會가 國內電氣產業界와의 直

*正會員·漢陽工大 教授(工務)·當學會 編修理事